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8월 15일(목), 15년 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국민들의 감성과 심정을 겨누는 작심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 경축사의 국가 핵심 비전이다. 나는 두 손 들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근래에 보기 드문 명연설이었다. 국내외 모든 현안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꼬여있는 한일관계와 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와 무역 분쟁으로 험겨투기하고 있는 미중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해결 또한 녹록치 않다. 이러한 미묘한 복합위기 속에서 나온 경축사에서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국내 문제에서는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온갖 시련을 극복해낸 우리 국민은 강하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건너차서는 안 된다. 일본의 무역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일 간의 우호와 미래를 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응은 성숙했고 의연했다.

분업과 협력으로 성장한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손을 잡겠다고 수위를 온건하게 조절했다.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일본이 자유무역을 해치는 부당한 규제에 맞서서 뚜박뚜박 한 걸음씩 걸어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겠다는 것이 경축사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도 부족해서 74년 동안 분단된 유일한 나라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끼여 있는 약소국가, 반도국가가 아니다. 제조 강국 6위, 수출 강국 6위의 작지만 강한 강소(強小)국가다. 이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경제침략 등 손해만 볼 뿐이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교량국가의 첫걸음이다.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로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이루고 평등한 국가협력의 아시아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아세안·인도와 공동 번영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블라디보스톡과 북극으로 이어

지는 환동해경제와 중국·아세안·인도로 향하는 환황해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평화 번영을 주도하는 교량국가 건설이 경축사의 두 번째 핵심이었다.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다. 국내에서,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눈보라치는 시베리아벌판에서, 상해에서, 충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자신의 복수와 가족의 안락을 바치며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선열들은 독립된 나라에서 동족끼리의 참담한 전쟁과 두 동강난 분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시련과 고난이 많은 민족이다.

외세가 해방(광복)을 시켰고 외세가 분단을 했고 외세의 부추김으로 전쟁도 했다. 힘이 없는 약소민족의 실용이다. 궁극적으로 힘이 있는 자주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우리민족의 문제이고, 우리민족이 주인이 되어야 풀어야 한다.

내가 자주 언급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적는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 용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선전 구호로만 있는데, '우리민족끼리'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다. 박 대통령 당시, 분단 27년 만에 1972년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이

원조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선언했다. 첫째, 외세(外勢)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 내용 중에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선언했다. 이 한 조항에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지만 국민의 선택으로 이겨냈다. 이념의 외투가 되지 말라고 주의도 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202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고 통일된 8천5백만 단일시장은 세계경제 6위국가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고 광복 100주년,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내놓았다.

평화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어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한 대목이다.

社說

'면허증 반납' 설득력 있어야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면허증 가진 반납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도시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농어촌 지역은 낙후된 도로 환경 탓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더 높지만,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해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겠다는 설문조사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몰발 상황에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차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 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몰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에서 고령층 비중이 더 높고 도로 환경도 도시지역 보다 열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 위한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요골을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시설 현대화가 근본 해법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발하면서 노후된 전통시장 현대화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1월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수많은 점포가 잿더미로 변해 폐허를 방불케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15명의 인명피해와 5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지금의 낡고 노후된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방재시설만 보강해서는 반복되는 화재를 막기 어

렵다. 올해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에서 불에 탄 점포들은 1970년에 지어진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없었으며 소화기를 제외하면 방재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특성상 냉장고 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불에 타기 쉬운 인화성물질

도 많고 좁은 통로에 백백이 들어선 좌판과 점포들은 한번 불길에 번지면 쉽게 잡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노후된 점포들은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영세상인들은 생활터전을 잃게 됐다.

관계기관에서는 노후된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중훈 / 순천경찰서 경비직전계장경감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